



‘그랜지에 비견되는 명품 샤르도네 와인’

펜폴즈 야타나 샤르도네

Yattarna Chardonnay

지역	호주 > 태즈마니아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처음 입안에 머금은 순간부터 마지막 글라스까지 신선하고 풍요로운 포도 과실의 주이시함과 여운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조화로운 밸런스가 최고의 샤르도네 와인임을 증명한다.		
페어링 TIP	샐러드/해산물/치즈		

#호주와인 #럭셔리



제품설명



1995년 첫 출시된 펜폴즈 야타나는 '화이트 그랜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랜지의 샤르도네 버전이라 불린다. 호주 내 차가운 기후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급 샤르도네 포도만을 엄선해 사용하였으며 프렌치 오크통에서 8개월 간 숙성 시간을 걸쳐 출시된다. 야타나는 최고의 와인을 만드려는 펜폴즈의 철학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와인으로 '야타나(Yattana)'라는 이름은 '조금씩 조금씩(Little by little)', '점차적으로(Gradually)'라는 의미를 가진다. 빈티지를 더해갈수록 더 나은 품질을 보여주는 호주를 대표할 만한 최고급 샤르도네 와인이다.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